

A Study on Dasan's and Jeungsan's Ideas on Ideal Human Beings and Society

Jeongrak Choi*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religious-moral practical theories of Dasan and Jeungsan, which are distinct from rationalist theories, ultimately pursue the transformation of individuals and society.

[Contents] Dasan and Jeungsan shared a focus on Sangje-centered moral cultivation for individual and social transformation, but their methods differed. Dasan emphasized moral practice based on his understanding of Sangje. In his major work, *Ilpyo Yiseo*, he presented a direction for social reform by reflecting a unified order system connecting Sangje, the monarch, local officials, and the people. Jeungsan argued that individuals could become sages enlightened to the Dao through cultivation, asserting that the earthly paradise in the Later World, a world of Sangsaeng(mutual beneficence), would arrive through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Conclusions] Dasan and Jeungsan both emphasized individual and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Sangje-centered religious moral practice, aiming to realize an ideal world. However, Dasan sought reform within the existing order, while Jeungsan envisioned a new world. Their different thoughts reflect the task and critical mind of the times in historical contexts.

[Keywords] Dasan, Jeungsan, Supreme God, Ideal human being, Ideal society

This paper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a section from Chapter 5, "Theory of Moral Practice," of Choi Jeong-rak's doctoral dissertation, *A Study of Dasan and Jeungsan's Moral Theories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Korea University, 2024).

* **Corresponding author** Jeongrak Choi (Researcher,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Daejin University)
E-mail : naturedao@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이상적 인간과 사회에 관한 다산과 증산의 사유

최정락

대순사상학술원 연구원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성적 방식의 이론과 차별화되는 다산 정약용과 증산 강일순의 종교적 도덕 실천론이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지향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다산과 증산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고,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사회 변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상제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실천을 강조한 점은 두 사상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구체적인 논의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다산은 상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주요 저작인 일표이서(一表二書)에서 상제-군주-목민관-백성을 연결하는 통일된 질서 체계를 반영하여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증산은 인간이 수양을 통해 도통군자(道通君子)가 될 수 있다고 여겼으며,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상생의 세계인 후천선경이 도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다산과 증산은 도덕적 실천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개혁을 모두 강조하였다. 특히, 상제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방식의 도덕 실천을 통해 이상세계의 구현을 지향하였다는 점은 두 사상의 핵심적인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산은 기존 질서 내의 개혁을, 증산은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통한 변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각 시대의 시대적 과제와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다산, 증산, 상제, 이상적 인간, 이상적 사회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인 최정락의 「종교적 관점에서 본 다산과 증산의 도덕론 연구」(2024) 중 5장 「도덕 실천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Received February 15, 2025 / Revised March 05, 2025 / Accepted March 21, 2025

I. 서론

동양 철학자들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유학에서는 하늘과 인간을 두 축으로 삼아 도덕 실천 방식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탐구는 종교적, 이성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유학의 전개 과정에서는 인격신적 초월자를 일컫는 천(天), 천명(天命), 상제(上帝) 등의 개념과 원리·법칙을 의미하는 태극(太極), 도(道), 리(理) 등의 개념이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고대 유가 경전인 『시경』과 『서경』에서는 초월적 존재 개념이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송나라 시대 성리학이 확립되면서 태극, 도, 리 등의 철학적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주돈이(周敦頤, 1017~1073)는 태극으로 만물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정이(程頤, 1033~1107)는 음양 이치와 도를 구분하며, 주희(朱熹, 1130~1200)는 이기론을 체계화하는 등 여러 학자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였다(Kim, 2007: 4-7). 이러한 변화는 하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종교적, 이성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학의 전통은 조선 성리학에도 나타났다. 이황(李滉, 1501~1570)은 주자학을 바탕으로 이기·심성론 연구를 통해 이성적 방식을 강화하면서도, 인격신적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종교적 방식도 중요하게 여겼다. 이황에서 성호학과 신서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윤휴(尹鑄, 1617~1680)는 이기론적 성리학 체계를 따르면서도 종교적 의미의 상제를 강조하며 외천(畏天)의 자세를 중요시하였다. 이황과 윤휴의 이론은 이후 기호 남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성호학과 신서파의 일원으로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수양론을 정립하여, 상제 중심의 학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교적 방식의 도덕 실천을 강화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민중 종교 사상에서도 종교적 방식의 도덕적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860년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창시한 동학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다양한 민중 종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증산교, 대종교, 남학, 원불교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종교적 수행을 통한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으며,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라는 행위를 통해 도덕적 이상사회 건설을 추구하였다.

다산과 증산의 천관, 특히 상제 개념에 관해서는 그동안 유의미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동희는 실학자들이 서양의 천주 개념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한 상제 개념이 동학 및 증산계 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Choi, 1989: 88).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 후기 천관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경원과 고남식의 논문이 있다.¹⁾ 성호학과 신서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

1) 이경원은 한국 근대 사회에서 인격천에 대한 관념이 전통적인 사상적 맥락 속에서 계승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지적하며, 다산은 ‘도덕적 인격천(道德的 人格天)’, 수운은 ‘신비적 인격천(神秘的 人格天)’, 증산은 ‘권화적 인격천(權化的 人格天)’을 제시한다고 규정하였다(Lee, 1998: 152-162). 고남식

제 사상은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최제우에게 계승되어 동학 상제 개념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학 구성원 일부가 증산교의 종도가 된 사실은 증산 사상에 동학의 여러 이념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제 개념을 중심으로 다산과 증산의 사상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실학사상과 민중 종교사상을 연결하는 종교적 사유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Choi, 2024: 1-6).

다산과 증산의 천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그들의 천관이 인간 존중 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두 사상가의 사상을 상제와의 감응이라는 종교적 방식으로 이해하면서도, 이상적인 인간상과 사회상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논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산과 증산의 사상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마음을 매개로 한 상제와의 감응 논리에 주목하여, 그들이 제시한 이상적 인간과 사회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산과 증산에게 상제와의 감응은 인간이 마음을 통해 상제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상제에 대한 인간의 경건한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Jungyongjajam, Volume 1).²⁾ 즉, 다산과 증산은 초월적 존재인 상제와의 교감을 통해 양심을 일깨우는 실천적 수양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다산과 증산의 사상을 이성적 방식의 이론과 구별되는 종교적 방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들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밝힌다. 다산과 증산은 상제와의 감응을 기반으로 이상적 인간과 사회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전개하였는가? 그들이 제시한 이상적 인간과 사회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가? 본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다산과 증산의 해명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두 사상가의 이상적 인간과 사회의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논자는 다산과 증산이 상제와의 감응 논리를 바탕으로 개인이 도덕 실천을 통한 이상적 인간으로의 변화와 사회 구조적 변혁을 통한 이상적 사회로의 변환을 동시에 강조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도덕 실천에 대한 그들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은 증산의 상제관이 다산의 유일신 중심 유학적 유신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남식은 증산이 유학적 유신론에 머무르지 않고 유불선 사상을 포괄하는 유신론으로 확장하여 독자적인 사상을 전개했다고 주장하였다(Ko, 2019: 347).

2) 中庸自箴·卷1, “是故, 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天之靈明, 直通人心. 無隱不察, 無微不燭.”, 『전경』, 행록 3-44,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다산에 대한 논의는 『정본 여유당전서』(2012)를, 증산에 대한 논의는 『전경』(2010)을 전거로 한다.

II. 이상적 인간

1. 다산: 국가를 다스리는 군자와 성인

다산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군자(君子)와 성인(聖人)이었다. 다산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으며, 더욱 수양에 힘쓰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산은 문질(文質)을 겸비한 사람이 군자라고 여겼는데, 여기서 문(文)은 외면으로 드러나는 표현을 의미하고 질(質)은 내면에 갖춘 도덕적 성품을 뜻한다. 또한, 다산은 도를 크게 행하여 천하를 교화한 사람이 성인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성인이 수신의 결과가 군자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Noneokokeumju*, Volume 3).³⁾ 다산에게 군자와 성인은 단순히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꾸준한 수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였다.

다산은 당시 사람들이 이상적 인간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다산은 천(天)을 리(理)로 이해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인(仁)을, 사물을 생성하는 이치로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셋째, 용(庸: 『중용』의 용)을 평상(平常)의 일로 이해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다산은 진정으로 신독을 실천하여 천을 경외하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을 실천하며, 지속해서 이를 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았다(*Simgyeongmilheom*).⁴⁾

여기서 신독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는 마음의 영역에서 신중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獨)은 상제의 천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뜻한다. 신독은 상제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다는 자각을 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다산은 인간의 악행이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잦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독을 더욱 강조한다(Lim, 2004: 102-104). 즉, 다산은 상제의 존재를 인식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다.⁵⁾

3) 論語古今注·卷3·述而下, “大而化之曰聖, 文質兼備曰君子. 文質兼備然後可以治人, 古者有治人之德者, 乃得在位. 在位曰君子, 謂大君之子也, 猶帝王之稱天子. 【或云, ‘君國子民曰君子, 其義, 非也.’】”.

4) 心經密驗·心性總義, “今人欲成聖而不能者, 厥有三端. 一認天爲理, 一認仁爲生物之理, 三認庸爲平常. 若愼獨以事天, 強恕以求仁, 又能恒久而不息, 斯聖人矣.”

5) 다산은 “황천의 상제는 유일한 최고신”이라 하여 상제관을 명확히 했다. 상제는 영명성(뛰어난 앎)과 주재성(만물 다스림)을 지닌다. 尙書古訓·卷6·君奭, “皇天上帝, 至一而無二, 至尊而無匹.”; 春秋考徵·卷4, “上帝者何? 是於天地神人之外, 造化天地神人萬物之類, 而宰制安養之者也. 謂帝爲天, 猶謂王爲國, 非以彼蒼蒼有形之天, 指之爲上帝也.”; 中庸自箴·卷1, “天之靈明, 直通人心, 無隱不察, 無微不燭, 照臨此室, 日監在茲. 人苟知此, 雖有大膽者, 不能不戒愼·恐懼矣.”

한편, 다산은 군자와 성인이 될 수 있는 주요 대상을 사대부 계층으로 보았다. 군주 정치 체제에서 위정자의 사리사욕은 국가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산은 위정자의 도덕적 수양이 덕치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산은 사익을 추구하며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특히, 위정자가 백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복(五福)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통치 체제가 무너진다고 경고하였다 (Sangseogohun, Volume 4).⁶⁾ 다산의 관점은 사대부의 사리사욕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산은 국가 기관의 공정성이 훼손된 시대적 상황에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왕권 강화와 상제의 존재를 통한 관리들의 도덕적 실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즉, 관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왕권 강화와 종교적 경건성을 동시에 활용하려 한 것이다.

2. 증산: 후천을 운영하는 도통군자

증산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통(道通)을 얻어 상생의 세상인 후천선경(後天仙境)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도통은 증산이 전수한 도를 수양함으로써 도달하는 참다운 경지를 의미한다. 증산사상의 핵심 교리는 상극에 지배된 선천 시대를 개벽하여 이상적인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데 있다(Reordering Works 1:3). 즉, 증산사상은 선천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후천의 조화와 평화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⁷⁾

증산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행을 통해 후천선경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수행을 통해 완성된 인간을 도통군자(道通君子)라고 불렀다. 도통군자는 도통을 이룬 군자라는 뜻으로, 증산사상에서 도통은 인간이 인륜을 행하고 도덕을 밝히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한 인간 본질로 회복했을 때 도달하는 경지이다. 이는 상제를 신앙하며 도덕을 실천한 결과로 얻게 되는 개인의 종교적 목적이 된다.

특히, 증산은 도통 시 도통신(道通神)들이 모여 각 개인의 수행 정도에 따라 도에 통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통은 증산만이 도에 통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姓)의 선령신(先靈神)이 천상(天上) 공정(公庭)에 참여하여 기다리는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도통은 도통신, 선령신 등 하늘 신명들의 책임하에 인간 수행 정도에 따라 도통과 관련된 신명

6) 尙書古訓·卷4·洪範, “黨同伐異, 負私滅公. 則其國必亂. 豈所謂建極乎? 大抵皇之所以爲皇, 以五福之權在皇也. 此權下移, 皇極乃亡.”

7) 『전경』에 따르면, 인류와 신명계가 멸망 위기에 처하자 신성, 불, 보살은 상제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이는 상제가 신적 체계의 최고 지위에 있으며, 신명은 제한적인 권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산사상에서 상제론의 핵심은 최고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삼계를 개벽하는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선경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Progress of the Order 1:9)

들과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도통은 마음을 닦은 정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수행 결과인 것이다(Progress of the Order 1:33).

이렇게 도통을 이룬 도통군자는 도덕성을 갖추고 자신에 맞는 기국에 따른 복록을 누리는 인격적 존재이며, 후천선경을 운영해 나갈 지도자이다. 증산은 도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해원상생(解冤相生)과 같은 도덕적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원상생은 서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원한을 풀거나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증산은 “지난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Progress of the Order 1:40)라고 언명하며 앞으로 도통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예시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점에서 도통은 천지공사의 설계에 따라 증산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증산은 도통군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양을 통해 도통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증산의 가르침이 담긴 『전경』을 살펴보면, 특히 증산이 주목했던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민중들이었다. 증산은 소외된 민중들을 ‘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것을 즐기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가 곧 나의 사람이니라”(Dharma 1:24)라고 언명하고,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돈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립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조아들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Dharma 2:8)라고 언명하였다. 증산은 민중이 지속적인 도덕 실천을 통해 후천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특히 억눌려 온 민중들의 한(恨)에 주목하여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증산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산과 증산은 모두 수양을 통한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두 사상가는 기존 사회 이념을 비판하며, 인격천을 중심으로 도덕적 수양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두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다산과 증산은 모두 인간이라면 마음 수행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

8) 증산은 도통이 인간이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며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고 언명한다. 증산은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 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설명한다(Progress of the Order 1:34).

9)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Dharma 3:1)

다고 보았지만, 그 대상에 차이가 있다. 다산의 문헌에서는 이상적 인간이 되는 주체가 주로 사대부 계층으로 논의되는 반면, 증산의 문헌에서는 민중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다산은 군자를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소인을 재야의 백성으로 구분한다. 다산은 사대부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때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 내리기를 바라며 자신의 도덕론을 펼쳤다. 즉, 다산은 사대부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증산의 천지공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 소외된 몰락한 양반이나 하층 민중들이었다. 증산은 민중을 ‘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도덕적 실천을 통해 후천 세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둘째, 다산과 증산은 이상적 인간이 되는 시점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산은 유학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를 사회 변혁의 주체로 보고, 그들이 도덕적 수양을 통해 군자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산은 군자와 성인의 경지를 단순히 관념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 이해하였다. 즉, 다산에게 이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였다. 반면, 증산은 이상적인 인간이 신명과 의 조화 속에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증산은 자신이 홀로 도통을 맡는 것이 아니라 도통을 할 시기가 오면 인간 각자가 심신(心身)을 닦은 정도에 따라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도(道)에 통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각 성(姓)씨의 선령신들이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도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도통은 상제의 주재하에 여러 신명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지임을 알 수 있다. 즉, 증산에게 이상적인 인간은 미래에 완성되는 존재였다.

셋째, 이상적 인간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상제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다산의 인격천은 전통 유학의 천관을 바탕으로 하며, 하늘에서 만물을 감찰하는 영명성(靈明性)과 주재성(主宰性)을 가진 존재로 규정된다. 즉, 다산에게 상제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도덕적 수양을 지켜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증산사상의 인격천은 상제가 구천(九天)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세상을 개벽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달리 말해, 증산사상에서 상제는 인간과 직접 대면하며 세상을 개벽하여 인간을 구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다산은 수행자의 긴장성과 각성을 고취하기 위해 상제의 영명성과 주재성을 부각하였다. 반면, 증산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 온 초월적인 하느님 신앙을 중시하며, 인간과 직접 대면하며 세상을 개벽하고 구원할 상제의 권능을 드러내었다. 다산은 유학적 전통에 근거하여 상제의 초월성을 강조하지만, 증산은 민중의 신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상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였다.

III. 이상적 사회

1. 다산: 왕도정치가 실현되는 일표이서(一表二書)의 국가

다산 사회개혁론은 다산의 유배 생활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사회개혁론 전기는 다산이 관직에 있을 때 다양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 다산의 글에는 사회개혁론의 기본 이념이 담겨 있다. 사회개혁론 후기는 다산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경학 연구를 통해 사회개혁 방안을 체계화한 일표이서(一表二書)를 만든 시기이다. 이 시기 다산은 병든 사회를 개혁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담긴 저술을 남겼다.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 사회에 대한 다산의 개혁 방안
<Table 1> Dasan's Reform Proposal for Joseon Society

병든 사회	→		본(本), 수기(修己)	↔	말(末), 치인(治人)	→	왕도정치 실현
		「원목」 「탕론」	경학: 육경, 사서		경세학: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전기	후기				

다산 사회개혁론의 전기는 백성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향하였다. 「농책(農策)」, 「전론(田論)」, 「원목(原牧)」, 「원정(原政)」, 「탕론(湯論)」 등 다산의 전기 저작들은 정치, 경제 제도의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중심이 되고 백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저작들은 각각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 유기적인 구조 속에 체계화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글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를 지녔다. 즉, 종합적인 개혁 체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단계였다.

다산 사회개혁론은 후기에 이르러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지향하는 관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세유표』(1817)에서 다산은 통치자의 쇄신을 통해 국가 주도로 위로부터 아래로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세도정치 상황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Kim, 2017: 242-244).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다산은 『경세유표』를 통해 장기적인 근본적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당장 실현하는 방안으로 목민관을 교화하는 『목민심서』(1818)와 『흙흙신서』(1822)를 저술하였다. 이 책들에서 다산은 목민관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향촌 통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다산은 이상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표이서의 각 저술은 개혁의 범위와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다산의 경학 체계와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제도개혁안으로 체계화된다. 특히 다산은 『주례』 중심의 경서 체계를 완성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주례』를 기반으로 천명사상을 매개하여 이를 군주와 연결하려 하였다(Moonjip, Volume 20).¹⁰⁾

다산은 『경세유표』에서 『주례』를 이상적인 통치 제도로 삼고, 행정기구의 개편, 관제, 토지제도 등 여러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하였다. 특히 다산은 『주례』 「대종백」의 군주와 신하 관계를 상제와 천신(天神), 지기(地示), 인귀(人鬼)의 관계로 해석하며, 『중용강의보』와 『논어고금주』에서 군주를, 천신을 관장하는 상제에, 신하를 그 역할을 분담하는 존재로 비유하였다. 다산은 『중용강의보』에서 “천이 천신으로써 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산(山)·천(川)·림(林)·택(澤)을 관장하게 하는 것처럼 인주(人主: 군주) 또한 인신(人臣: 신하)들이 이 일을 나누어 관장하게 한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인신 중에 공이 있는 자를 천신에 배(配)하고 사직(社稷)과 오사(五祀)와 산천(山川)에 제사 지내니 명(名)은 비록 지기이지만 그 실(實)은 모두 천신과 인귀이다.”(Jungyongganguiibo)¹¹⁾라고 하였다. 또한 다산은 『논어고금주』에서 천하의 군목은 모두 상제의 신하로서 어진 이를 숨기지 않고 천거하는 것이 책무이지만 천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최종 결정은 오직 상제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Noneokokeumju, Volume 10).¹²⁾ 다산은 『주례』 「대종백」의 논리에 근거하여 군주와 신하, 상제와 천신의 관계를 동일한 논리로 이해하고, 『경세유표』에서 정전제 및 부공제 관련 조항과 같이 제도개혁의 주체로서 군주의 권위를 강조할 때 『주례』 「대종백」 및 『서경』 「홍범」 등을 활용하였다(Back, 2012: 84-85). 이는 상제와 군주를, 만물을 주재하는 존재로 직접 연결하여 군주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하늘과 백성을 강조하였다. 다산은 목민관이 백성, 조정(朝廷), 대간(臺諫), 하늘 네 가지를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다산은 백성과 하늘은 항상 가까이 있으므로, 목민관은 그 뜻을 항상 살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Moonjip, Volume 12).¹³⁾ 이는 목민관이 군주와 고위 신하들이

10) 文集·卷20·書, “我若無病久生, 則欲全注『周禮』, 而朝露之命, 不知何時歸化, 不敢生意. 然心以爲三代之治, 苟欲復之, 非此書無可著手.”, 論語古今注·卷1·爲政 下, “典章法度, 至周而大備, 盡善盡美, 無可損益. 有王者興, 必一遵周禮, 百世不變.”

11) 中庸講義補, “天以天神, 各司水·火·金·木·土·穀·山·川·林·澤, 人主亦使人臣分掌是事. 及其後世, 乃以人臣之有功者, 配於天神, 以祭社稷, 以祭五祀, 以祭山川, 則名雖地示, 其實皆天神·人鬼也.”

12) 論語古今注·卷10·堯曰 第二十 【凡六章】, “補曰 天下君牧, 皆上帝之臣, 我不敢蔽賢, 其簡選以立天子, 惟在上帝之心.”

13) 文集·卷12·序, “牧民者有四畏, 下畏民, 上畏臺省, 又上而畏朝廷, 又上而畏天. 然牧之所畏, 恒在乎臺省

있는 조정, 감찰 업무를 맡은 대관(臺官)과 국왕에게 직언하는 업무를 맡은 간관(諫官)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다산은 목민관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늘과 백성이라고 단언하였다. 하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고, 백성은 그 행실을 지켜보는 존재로 그려졌다. 요컨대, 다산은 목민관이 백성과 하늘의 감시를 인식하며, 도덕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산은 『흙흙신서』에서 형법 관련 사건의 조사, 심리, 처형 과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을 계몽하고자 하였다. 다산은 인간의 생사를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나, 지방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면서 오판을 저지르는 현실을 비판하며, 지방관이 권력을 남용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죄 있는 자를 살리는 등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행태를 인간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사례로 지적하였다(Heumheumsinseo, Volume 1).¹⁴⁾ 다산은 지방관의 오판은 백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목민관이 하늘의 권한인 천권(天權)을 가지고 인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산은 ‘상제 → 군주 → 목민관 → 백성’으로 통일된 질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이를 일표이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개혁의 지침으로 삼았다. 다산은 일표이서에서 일관된 논지로 상제에 대한 감응을 전제로 지속적인 사회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영명한 상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 증산: 상생의 원리가 실현되는 후천선경

증산은 후천선경이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하였다. 증산은 후천선경을 좋은 시대, 좋은 세상, 낙원, 선경, 지상선경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후천선경은 해원상생의 원리가 적용되어 조화를 이룬 세계를 의미한다. 증산에 따르면 세상은 천지공사의 설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다음 세 단계를 포함한다. ① 세상에 쌓였던 원을 푸는 해원 시기, ② 인류에게 닥치는 재난인 병겁 시기, ③ 세상의 신명과 인간이 심판받고 천지가 변화하는 개벽 시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세계는 온전한 후천선경으로 변화하게 된다(Cha, 2013: 227).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朝廷, 而民與天, 有時乎勿畏. 然臺省朝廷, 或邇或遠. 遠者千里, 其彌遠者數千里, 其耳目所察, 或不能周詳. 惟民與天, 瞻之在庭, 臨之在心, 領之在肘腋, 與之在呼吸, 其密邇而不能須臾離莫此若. 凡知道者, 曷不畏矣?”

- 14) 欽欽新書·卷1·序, “惟天生人而又死之, 人命繫乎天. 迺司牧又以其間, 安其善良而生之, 孰有辜者而死之, 是顯見天權耳. 人代操天權, 罔知兢畏, 不剖豪析芒, 迺漫迺昏, 或生而致死之, 亦死而致生之. 尚恬焉安焉.”

<표 2> 후천선경이 열리는 과정

<Table 2> The Process of the Later World's Paradisiacal Opening

선천 시기					후천
선천	→	천지공사기	→	해원 시기 → 병겁 시기 → 개벽 시기	→ 후천선경
선천에서 후천선경으로 가는 과도기					

천지공사 이전 세상인 선천은 상극(相克)의 원리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힌 특징을 지녔다. 증산은 이러한 선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相生)의 원리를 바탕으로 쌓였던 원한을 먼저 푸는 해원의 시기를 거치게 한다. 해원의 시기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저마다 쌓였던 원을 풀기 위해 해원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증산은 수행하며 남을 잘 되게 하는 데 힘쓸 것을 강조한다. 해원의 시기 이후에는 병겁(病劫)의 시기가 도래하여 세계가 질병으로 재앙을 겪게 되고, 이후 개벽의 시기에는 신명과 인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

『전경』에 「옥추통(玉樞統)」에는 개벽 시기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Progress of the Order 2:42). 구체적으로 개벽 시기에는 상제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고, 여러 신명이 상제를 받들어 따르며 세상 만물이 변화를 맞이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세상의 살기(殺氣)와 악이 저절로 사라지고, 대사(大事)가 바로 잡히며, 만물이 새롭게 태어난다. 더욱이 증산은 자신이 신명계의 여러 신장을 데리고 옥추(玉樞)의 문을 열 때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Prophetic Elucidations 78). 이러한 개벽 시기에는 신명과 인간에 대한 심판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양을 통해 선한 덕을 쌓은 인간은 온전한 후천선경에 참여하게 된다.

증산의 사상체계에서 후천선경의 건설은 무력에 의한 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증산은 후천시대의 원리를 ‘상생의 도’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도덕을 실천하여 서로가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Progress of the Order 1:16). 증산은 도덕의 실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원상생(解冤相生)이다. 해원상생은 원을 풀고 서로 잘 되게 한다는 의미로 증산사상의 중요 이념이자 도덕을 향한 종교적인 이념이다. 상생 관계에서는 원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 신명, 자연 만물이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증산은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Dharma 1:2)라고 말하며 서로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해원과 상생은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서로의 원을 풀어주는 행위는 서로를 살리고 잘 되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산은 천지에 쌓인 원을 풀고 만물이 서로 상생하게 하면서 이상세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증산의 관점에서 해원상생은 천지를 변화시키는 원리이자 천지공사의 핵심 방법이다. 세상이 참혹하게 된 원인은 역사적으로 쌓인 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을 푸는 해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원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경』에는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Prophetic Elucidations 6)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원상생은 종교적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도덕 실천의 주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원상생은 증산의 천지공사만이 아니라 수양하는 인간에게도 실천 항목으로 제시된다. 즉, 증산은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해원상생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Jang, 1979: 74).

증산이 제시한 후천선경은 어떠한 문화를 가지는가? 증산은 후천선경의 문화를 특정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 민족문화의 정수를 모아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았다(Dharma 3:23). 이는 상제가 모든 도통신, 문명신과 함께 여러 민족의 문화 정수를 통일하고 새로운 도수를 짜서 후천 문명의 기초를 세운다는 『전경』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Prophetic Elucidations 12). 또한 후천 사회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빈부 격차와 형별이 없이 조화롭게 만물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특히 증산은 후천 사회에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를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정신문명은 증산 자신의 도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Reordering Works 1:35, Prophetic Elucidations 6).

이러한 관점에서 후천 문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후천 문명은 선천 문화와 사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형태로 창조된다. 두 번째로 후천 문명은 특정 지역이나 민족의 문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공통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는 민족, 국가, 인종 등 모든 차별을 넘어 인류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가 도래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후천 문명은 동양과 서양의 조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즉,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다양한 가치와 요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합적인 문명을 지향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후천선경의 문화는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두 사상가는 기존 사회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이상사회 건설을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상사회의 건설 방식, 모습, 시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첫째, 이상사회의 건설 방식과 모습에 관한 차이가 있다. 다산은 군주와 신하가 새로운 제도를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다산은 주나라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주례』를 이상적인 제도로 여기며, 통치자와 정치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증산은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선경이 열린다고 예시하며 도덕 실천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증산은 각 민족의 문화 정수를 모아 후천 세계의 문명 기초를 세우고, 민중들에게 도덕 실천을 통해 현세의 복과 후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훈유하였다. 즉, 다산은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위정자와 목민관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

한 반면, 증산은 종교적 행위인 천지공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방안을 제시하며 민중의 도덕적 각성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상사회 건설 시점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다. 다산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 즉 조선 후기에 이상 국가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현실 정치에서 지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다산은 위정자와 관리들의 도덕 실천을 통해 현실에서 조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증산은 이상적인 사회가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벽 이후 새로운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증산은 천지공사의 설계에 따라 세상이 점차 변화하며, 정해진 시기가 오면 새로운 기틀이 열린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벽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도덕 실천을 통해 선을 쌓고 신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다산과 증산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 구조적 변혁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에는 상제 중심의 종교적 도덕 실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두 사상가 모두 상제와의 교감을 통해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다산의 핵심 문제의식은 ‘유가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방식의 도덕 실천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었다. 다산은 종교적 방식의 도덕 실천을 통해 인간이 유학 이념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바랐고,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사회 제도를 보완하여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증산의 핵심 문제의식은 ‘진멸지경의 위기 상황 속에서 천지공사의 종교적 이념과 도덕 실천을 통해 후천선경을 건설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증산은 종교적 방식의 도덕 실천을 통해 인간이 신명과 조화하여 후천에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바랐고, 천지공사 이념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희망하였다.

이처럼 다산과 증산은 도덕 실천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변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덕적인 개인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고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된다고 믿었다. 두 사상가의 사상체계는 인격천과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도덕 실천을 강조한다. 이는 상제와 마주하는 인간의 마음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어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선을 지향하며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상가의 사유 체계는 복잡한 이론이나 종교 이론보다 삶에서 실천하기가 더 간단하며, 상제와의 직접적인 감응을 통해 개인의 도덕적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도덕 실천을 경험한 사람들이 협력할 때 더욱 큰 선한 의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제를 마음으로 인식한 사람은 더욱 솔직한 양심으로 세상에 임할 수 있으며 다산과 증산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던 두 사상가의 목표를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 다산과 증산이 도덕 실천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했음을 살펴보았다. 두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은 끊임없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존재이며, 이상사회 또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구축되는 사회이다. 즉, 다산과 증산은 인간이 현실 속에서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변화를 이루고 나아가 사회 혁신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사상가가 종교적인 방식을 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질서와 사유 체계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와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산과 증산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적 방식의 사유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학사상과 민중 종교 사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定本 與猶堂全書, 서울: 다산학술문화재단. (Translated in English) Tasan Cultural Foundation (2012). *The Official Edition of Yeoyudang Jeonseong*, Seoul: Tasan Cultural Foundation.
-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Academic Affair Department of Daesoon Jinrihoe (2010). *Jeon-gyeong* (The Canonical Scripture). Yeoju: Daesoonjinrihoe Press.

[Secondary Sources]

- Baek, M. J. (2012). Philosophical Principles in the Composition of Jeong Yak-yong's Gyeongseupyo. *The Journal Of Asian Philosophy In Korea*, 37, 73-119.
- Cha, S. K. (2013), 'The Great Open' and the Earthly Paradise of Daesoonjinriho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29, 217-253.

- Choi, J. R. (2024), *A Study of Dasan and Jeungsan's Moral Theories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Kim, H. C. (2007). Two Ways to "Inner Sage and Outer Sovereign": Centered on Li and Sangje in Toegye's Philosophy. *Philosophical Studies*, 34, 3-28.
- Kim, S. H. (2017). Tasan's Project of a Confucian Public World Examined through Gyeongse yupyo. *Journal of TASAN Studies*, 31, 175-252.
- Ko, N. S. (2019). Comparison between Dasan's Thought and Kang Jeungsan's Thought of the Late Chosun Dynasty: Returning to the Tradition and Understanding of Humans. *The East Asian Ancient Studies*, 53, 317-352.
- Lee, K. W. (1998).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 god in the later Choson dynasty: in view of Dha San, Sue Woon and Jeung S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Lim, B. Y. (2004). *A study on theory of self-cultivation in Ch'ong Yag Yong' though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장병길 (1979). 해원사상의 본질고(本質攷). 증산사상연구 5, 60-74. (Translated in English) Jang, B. G. (1979), A Study on the Essence of Hae-won Thought, *A Study of Jeungsan Thought*, 5, 60-74.
- 최동희 (1989). 한국사상의 원류와 증산사상, 증산사상연구 15, 71-94. (Translated in English) Choi, D. H. (1989), The Roots of Korean Thought and Jeungsan Thought, *A Study of Jeungsan Thought*, 15, 71-94.